비교문화연구 제79집 (2026.10) pp. 311~353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 재현과 수용:

중국과 한국 이민자 서사를 중심으로*

장 첨 려**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류 웅 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국문초록

오늘날 대중문화는 국가 경계를 넘어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는 초국적 콘텐츠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이민자 경험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서사 장르로 부상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서구 주류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개념과 호미 바바의 문화적 혼종성 이론이 구성된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부상 배경과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페어웰〉, 〈미나리〉, 〈패스트 라이브즈〉 네 작품의 서사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이미지와 문화 정체성의 재현 양상을 탐구하였다. 더불어 중국인과 한국인 수용자 1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장르 작품이 동아시아 지역에 가져온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심층적으로 재현하고 혼종적 정체성을 주요 서사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권력 질서에 도전하는 탈식민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여전히 아시아와 미국을 이항 대립적으로 재현하며, 특정한 아메리칸드림의 신화를 반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2026년 8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wjryoo@hanyang.ac.kr

www.kci.go.kr

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미국을 기회와 성공의 중심지로 위치시킨다. 한편, 동아시아 수용자들은 미국 중심적 문화 권력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아계 재현의 가시화와 제도적 승인에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타협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가 지역적 차이와 소수민족 정체성을 전면화하면서도 이를 미국 중심의 문화 질서 안에 재배치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효과와 그 양가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들은 타민족 서사의 전유와 재생산을 통해 변형된 문화제국주의적 위상을 강화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민족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적 문화 작품의 수용에 대한 성찰적인 수용과 사회적 숙의가 요구된다.

주제어 :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 오리엔탈리즘, 문화적 혼종성, 동아시아 수용자

1. 들어가며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에 따라 자본, 인력, 상품의 초국적 유통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확산과 맞물리면서 이민, 관광, 노동력 이동 등 민족 집단의 국가 간 이동을 가속화하였다(Iwabuchi 2010:197). 이러한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미디어는 문화 간 상호작용과 문화적 의미 생산을 매개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하며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나아가 초국적 이동의 증가는 국가 간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초국적 문화 소비의 확산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흐름은 국가 간에 비대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미국 영화산업은 막대한 자본력과 글로벌 배급망을 기반으로 세계 문화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영화는 단순한 오락물이나 서사적 텍스트를 넘어 민주주의, 자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자본주의, 백인, 남성 중심주의 등 미국 중심의 가치와 질서를 확산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박소영・노철환 2021:31). 동시에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동질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문화적 차별성과 고유성을 확보하려는 요구

www.kci.go.kr

또한 증대되었으며, 지역성(locality)은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재현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영화산업은 주변부의 문화적 요소를 포섭하여 초국적 문화콘텐츠로 재구성하였고 이를 미국 중심의 문화 질서로 편입시키는 탈문화화(deculturalization) 전략을 전개해 왔다. 즉 지역성은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1]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된다.

롤랜드 로버트슨(Roland Robertson)은 글로컬라이제이션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화의 접합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중 민족은 글로컬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시장 가치를 지닌 중요한 지역적 단위로 재구성되어 상업화된 문화 다양성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Iwabuchi 2010:206). 이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역 주체의 삶과 실천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성은 그러한 글로벌 권력이 다양한 형식과 실천 속에서 변형되고 협상되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라이제이 션의 정경과 그에 대한 깊은 이해는 로컬과 글로벌 권력이 맺는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교섭의 과정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소수민족 서사를 재현하는 작품들은 미국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한 기존 미국 영화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기존 미국 작품들은 아시아계 집단을 왜곡하거나 타자화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재현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서구가 동양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구성해 왔음을 보여준다(Said 1978/2015:515). 반면,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아시아계 집단의 이민 경험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며, 비영어 대사의 사용과 동아시아 생활양식의 재현을 통해 문화적 진실성을 강화하는 서사적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사는 민족적 요소를 통해 아시아 수용자의 관심

1) 로버트슨(Roland Robertson)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세계화와 지역화의 병행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지역적 특성이 세계화의 전개 과정에서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문화산업에서 세계화된 생산 양식을 바탕으로 현지의 의미를 창출하고 새로운 문화적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Iwabuchi 2010:198).

www.kci.go.kr

을 일으키고 있으며, 실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흥행성과를 기록하였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최근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아시아계 집단을 재현하는 대표적 서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자민족 서사를 재현하는 문화콘텐츠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미디어 서사는 단순한 문화적 재현을 넘어 타자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형성하며, 이를 광범위한 사회적 '상식'으로 정착시키는 힘을 지닌다(한송희 2020:9). 이처럼 미디어가 대중의 사회문화적 인식 혹은 정서구조의 형성에 미치는 긴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내재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이 연구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대한 텍스트적 분석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수용자를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한 민속지학적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및 이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권력 담론 및 이의 작동 과정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화 산업이 타인종 서사를 매개로 미국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산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서사가 동아시아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Crazy Rich Asians)>(2018), <페어웰(The Farewell)>(2019), <미나리(Minari)>(2020),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2023)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작품에 재현된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과 이를 둘러싼 지배적 담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www.kci.go.kr

2. 이론적 논의

1) 탈식민주의 논의의 전개와 현재

문화적 정체성은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코드를 반영하며 역사적 분열과 사회적 변동 속에서도 집단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점으로 기능한다(Hall 1996/2015:223).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재현된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은 미국이 공유하는 아시안(Asian)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다. 오늘날 동일한 공간에 공존하는 인종적・문화적 집단을 정태적이거나 단일한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속화한 탈식민 국면에서는 새로운 층위의 복잡성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연관된 작품에 재현된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을 중심으로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이에 내재된 변형된 지배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탈식민주의는 문화적 지배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고, 이는 서구중심의 담론을 비판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자기 내부에 내면화된 식민성을 성찰하는 과정을 중시한다(이태준 2024:225). 동시에 이는 권력담론으로 작동하는 식민주의 문화를 전복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기획이라 할 수 있으며, 이항대립적 관점의 극복, 주체와 타자의 관계, 문화와 정치의 연계, 권력과 저항의 변증법, 근대와 탈근대 등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나병철 2004:19). 1970년대부터 탈식민주의는 서구 학계에서 정치적・비판적 성격을 지닌 주요 접근 방법으로 부상하였으며,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구)식민지 및 제3세계 간 복잡한 관계와 변화 과정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호미 바바(Homi Bhabha),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 등이 대표적 학자로 알려져 있다.

사이드(Said)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하나의 담론 체계로 간

www.kci.go.kr

주한다. 서양은 동양을 열등한 '타자(the Other)'로 타자화(他者化)해 왔으며, 이 같은 재현 방식은 다양한 문화적 형태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오리엔탈리즘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서양이 동양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기능하며, 동서양 사이에 작동하는 '쓰기-쓰임'의 권력관계를 규명하는 분석적 개념이다. 사이드는 서구인들이 동양을 방문하고 기록한 역사 및 문학 텍스트들을 분석하였다. 그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 의해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동양 담론을 비판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와 담론 체계를 조명하였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 형성된 인식론적・존재론적 구별에 기반한 사유이며, 동시에,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는 서양의 권력 작동 방식이기도 하다(Said 1978/2015:16-18). 가령, 서구가 구축한 동양에 대한 획일적 인식과 규정은 '지식'으로 권위를 획득한다. 이는 사회 내 권력을 행사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서구는 이러한 단일한 '동양 담론'에 진리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동양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이용한다(원용진 2010:465).

구체적으로, 서양을 우월한 문명으로 구성하고 강화하는 오리엔탈리즘은 정형화된 이분법적 재현 체계를 통해 동서양 간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분류하고 차이를 재생산한다. 동양은 관능・침묵・독재・비이성・후진 등의 이미지로 재현되는 반면, 서양은 민주・이성・도덕・역동・진보 등의 가치로 표상된다. 때로, 동양이 장수, 탈속, 불변의 긍정적 이미지로 미화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서양이 타자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결과이다(Moore-Gilbert 1997/2003:119). 서구의 시선에서 동양은 오리엔탈리즘 담론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어렵지만, 이 일방적 시선은 동양의 주체성과 물질성을 억압하는 권력으로 작동한다(나병철 2004:24). 미디어 재현은 19세기에 구축된 '신비로운 동양' 담론의 영향력을 증폭시켰고 재현된 동양의 이미지는 오리엔탈리즘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투사해 왔다.

그러나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기존의 오리엔탈리즘적 재현과 차별

www.kci.go.kr

화되며, 이러한 점에서 사이드의 동서양 이분법은 동양의 주체성과 물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은 오리엔탈리즘이 서양과 동양의 상호작용 산물임을 주장하며, '동양인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of the Orientals)'이라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발전한 자기-오리엔탈리즘(Self-Orientalism)은 아시아 내부의 오리엔탈리즘이 재생산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자기-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이 서양의 시선을 내면화하거나 서구가 구축한 동양의 허구적 이미지로 스스로를 재현하는 현상으로, 국가 또는 민족의 과거를 담론적으로 구성하는 전통을 소환하고 재창조하는 역할로 기능한다(Feighery 2012:271). 이는 대표적으로 아시아가 서구 콘텐츠와 문화물이 스테레오타입화한 자신의 문화 기호와 코드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문화 전략에서 나타난다.

한편, 탈식민주의 이론은 권력과 저항의 문제를 주목하여 그 맥락에서 진정한 저항은 대항문화의 창조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나병철 2004:24). 호미 바바(Homi Bhabha)는 지배 담론 속 비일관성, 모순, 양가성이라는 '틈새'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식민 지배는 식민자의 일방적 지배와 억압이 아니라, 양자가 얽히는 복합적인 권력관계이다. 정체성은 식민자의 자아나 피식민자의 타자로 고정되지 않고, 식민적 타자성의 형성을 구성하는 두 요소 사이의 간극이다(Bhabha 1994/2012:113). 즉, 정체성은 이중적이며 분열적이다. 불안정성은 피식민자를 '사이에 낀(in-between)' 위치에 놓고 식민 지배 하 피식민자의 반응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수용과 저항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바바는 이러한 불안정하고 동요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탈식민주의의 핵심 쟁점으로 간주한다. 그는 인종적, 성적 차이가 담론적 권력 행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중화'와 '분열'을 수반한다고 강조한다(Bhabha 1994/2012:13-14). 그는 혼종성(hybridity), 모방(mimicry), 제3의 공간(third space) 등의 개념을 통해 서구의 지배적 권력-담론이 양가성과 혼종성에 의해 균열되고 전복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아시안 아메리칸 영

www.kci.go.kr

화는 바로 동서양 문화가 조우하는 ‘제3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대립적 문화들이 서로를 타자로 인지하면서 상호 교섭과 혼성화의 과정을 통해 주체 문화를 역동적이고 개방적 형식으로 재창조하는 장(場)을 의미한다(Bhabha 1994/2012:10-11).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혼종성은 피식민자를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서 식민 담론에 저항할 수 있는 핵심적 기제임을 강조한다. 즉, 혼종성은 피식민 주체와의 만남을 통해 식민 담론 내부의 균열과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이는 새로운 인식 체계로의 재구성 과정으로 이어진다.

혼종성은 하나의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문화 간의 관계가 복합적이고 과정적이며 역동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의미한다(Kraidy 2002:317). 바바에게 문화적 혼종성은 우회적인 권력관계를 통해 구성되며 세계화 역시 기호적 또는 상징적 매개를 통해 지역성과 경쟁하고 협상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문화적 혼종성은 오늘날 문화산업에서 초국적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핵심 전략으로 활용되며, 식민주의적 이분법을 넘어 제3의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나병철 2004:121-122).

한편, 혼종성은 초국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문화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초국가적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장을 선도하는 진보적인 힘으로 묘사된다(Kraidy 2002:325).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문화적 참신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 수익 분배 등 새로운 권력 문제를 수반한다. 이에 따라 탈식민주의 이론은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재현된 문화 정체성과 혼종성, 그리고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효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2)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진화와 쟁점

2025년 6월 기준 미국 이민자 수는 약 5,190만 명에 달하고 아시아는

www.kci.go.kr

미국 이민자의 두 번째 주요 출신지로, 2023년 기준 전체 이민자의 27퍼센트(약 1,400만 명)를 차지하였다(Kramer & Passel 2025). 미국 내 아시아계의 최초 정착은 약 1760년대 오늘날 루이지애나(Louisiana) 지역에 정착한 필리핀 선원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본격적인 대규모 아시아계 이주는 19세기 중반 중국계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다(김용한・이전이 2015:284). 아시아계 집단은 오랜 기간 구조적 인종차별[2]을 경험해 왔고 이러한 역사는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 인구 증가에 따라, 1960년대 이후 아시아계 집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인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념은 이전까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던 인종적 범주가 미국이란 초강대국의 정치적 지형 속으로 편입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담론적 범주이자 사회적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분류와 인정, 소속감 형성의 기준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집합적 정체성은 고용, 교육 및 주류 문화자본의 재편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출판과 교육 과정에서 아시아계 서사의 편입을 촉진하며 문화적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이는 (서구) 주류 사회의 수용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Li 1998:176).

해당 용어는 서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아시아계 집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존재를 가시화하는 데 일조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시아계 인구가 다양화되면서 이 개념은 초기 이주민의 후손부터 아시아적 정체성을 지닌 신규 이민자들까지 포괄하는 범주로 확장되었으나, 미국 내 아시아계를 통일된 범주로 호명함으로써 내부적 다양성을 축소하고 범주의 모호성을 심화시켰다는 한계를 지닌다(Chong 2017:132). 이민의

2) 초기 아시아계 이민자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에 대거 유입되었으나, 이후 현지 경제 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아시안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차별을 경험하였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광부세(Foreign Miners' Tax)」,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1924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은 구조적 인종차별을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www.kci.go.kr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 차별은 아시아계 집단을 오랫동안 서구 사회에서 ‘근면한 노동자’의 이미지로 고착화했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은 미디어 재현을 통해 서구 스크린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아시아계 집단은 미국 사회에서 주로 ‘황화(yellow peril)’와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라는 이분법적 스테레오타입 속에서 재현되어 왔다. 전자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방대한 인구, 군사력, 경제력이 백인 중심의 패권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공포에서 비롯되었다면(Kawai 2005:112), 후자는 근대 이후 아시아계 집단의 근면성과 성과 지향성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표상은 아시아계 집단을 다른 소수 인종 집단과 구별함으로써 인종 간 위계와 차별적 인식을 고착화시킨다.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를 둘러싼 인종차별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 인구의 증가는 아시아계 집단을 둘러싼 문화 생산을 촉진하였다. 이들 문화콘텐츠의 상당수는 가족 단위로 이민 경험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자전적 성격으로 전개되었으며 동서양 문화의 충돌과 이주 이후의 적응 및 통합 과정을 내부자 시점으로 섬세하게 재현한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장기간의 문화적 충돌과 차별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왔고, 특히 2세대 이민자는 가족을 통해 전승된 전통문화와 이주한 서구의 주류문화 사이에서 더욱 복합적인 갈등을 경험한다. 예컨대 백인 주류 사회의 인종적 스테레오타입과 외형적 차이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동일 민족 내부의 이중적 차별에도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계 집단이 경험해 온 소외와 곤경은 오랫동안 서구 사회에서 간과되어 왔지만 관련 문화 텍스트의 등장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중 자전적 소설을 비롯한 문학 작품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며 이후 아시아계 문화콘텐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지하듯 20세기 초반부터 영화는 미국의 대표적 문화산업으로 부상하였고 이와 함께 아시아계 집단을 다룬 영화들도 속속 등장하였다. <조이 럭 클럽>(1993),

www.kci.go.kr

<쿵후 선생(Pushing Hands)>(1992), <결혼피로연(The Wedding Banquet)>(1993), <음식남녀(Eat, Drink, Man, Woman)>(1994) 등의 영화들은 동서양 문화의 차이와 중국 가족 내부의 갈등을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며 내부자적 시선으로 아시아계 이미지의 다양성을 재현하였다.

이후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오랜 시간 침체기를 겪어오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Crazy Rich Asians)>의 개봉을 계기로 2010년대부터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북미 박스 오피스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복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부상과 함께 관련 연구도 증가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복수의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해 왔다[3].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개별 작품들의 서사나 텍스트 분석에 치중해 왔으며, 중요한 수용 공간인 동아시아 수용자의 해석 과정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한계를 지닌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제작은 복잡한 권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며 아시아계 집단의 민족적 기대를 반영할 책임을 지니는 동시에, 서구 주류 시장의 상업적 니즈(needs)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디아스포라 감독의 혼종적 정체성과 다문화적 경험은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의 재현 방식과 서사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문맥에서 작품에 내재된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영화의 서사 분석과 동아시아 수용자에 대한 심층 인터

3) 그중 장첨려・류웅재(2025)는 이와 관련해 두 편의 흥행작품에 재현된 디아스포라 문화 정체성의 양상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해당 연구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재현된 동양 담론을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글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전자가 두 영화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온라인 댓글 등 2, 3차 텍스트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의 반응을 언어적 측면에서 살폈다면,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인 작품을 네 편으로 확대해 분석적 범주와 층위를 확장하였고, 여기에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수용자에 대한 포괄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영화의 초국적 확산과 수용, 그 이면의 정동과 권력 효과를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차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www.kci.go.kr

뷰를 병행해 작품에 재현된 ‘동양 담론’과 그것이 동아시아 수용자에게 작동하는 권력 효과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미국 영화산업이 구축하는 새로운 동양 담론의 구성과 초국적 권력 작동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오랫동안 독립영화의 비주류 영역 혹은 ‘소수 인종 영화(ethnic minority film)’라는 특수 범주로 분류되며 주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영화들이 인종・민족적 정체성의 표상으로 일부 주목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미학적・산업적 측면에서 주류 영화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채 소수자성을 지속적으로 부여받아 왔음을 보여준다(박은지 2026:242). 이러한 장르 영화는 가족 서사와 이민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계의 삶을 재현하며 특히 가부장제에 기반한 효(孝) 문화, 집단주의, 위계적 가족 관계를 핵심적 문화의 기제나 양상으로 제시한다. 물론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족 중심적 가치관은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인류적 보편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재현된 동아시아 가족문화의 특성 및 이것이 서구 수용자는 물론 동아시아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의 서사 이론을 바탕으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페어웰>, <미나리>, <패스트 라이브즈> 등 네 편의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를 대상으로 서사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이들 작품은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제작 및 개봉하였고 모두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네 작품은 중국계와 한국계 이민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하며 가족, 이주, 정체성 갈등 등의 소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효한 비교 분석의 대상이 된다.[4] 분석 대상 영화의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다.

www.kci.go.kr

〈표 1〉 분석 대상인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대한 기본 정보

개봉일[5]	영화	감독	주요 수상 기록	제작사/배급사	월드 박스오피스 (달러)[6]	원본
2018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존 추	24회 크리틱스 초이스 코미디 영화상	Color Force/ Warner Bros.	$239,343,729	소설
2019	페어웰	롤루 왕	77회 골든 글로브 뮤지컬・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	Big Beach/ A24	$23,076,657	자전적 스토리
2020	미나리	정이삭	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A24, Plan B/ A24	$15,288,578	자전적 스토리
2023	패스트 라이브즈	셀린 송	58회 전미비평가협회 작품상	A24, CJ ENM	$42,710,296	

4) 물론 이들 네 작품이 모두 동일한 아시아 아메리칸 영화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스트 라이브즈>의 경우 감독과 등장인물 모두 한국계 캐나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범주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다만 이 영화 역시 미국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A24와 한국의 CJ ENM이 공동으로 제작 및 투자 배급한 작품으로 미국 제작 영화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명칭과 범주를 특정 국가나 국적(예. 미국)으로 제한하기보다 이들 영화가 기획, 생산, 유통, 수용되는 지역 및 이것이 상상하고 재현하는 서사(예.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 영주권 취득) 등 광의의 해석을 차용할 경우 이러한 범주화는 분석적 유용성을 지닌다.

5) 각 영화의 개봉일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초 개봉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6) 글로벌 박스오피스 데이터는 영화 흥행수익 통계 플랫폼인 Box Office Mojo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수집하였다(검색일: 2026.5.9, URL: https://www.boxofficemojo.com).

www.kci.go.kr

채트먼의 서사 이론은 현대 미디어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며 텍스트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중요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그는 서사를 '이야기(story)'와 '담화(discourse)'로 구분한다. 이야기는 서사물의 내용적 측면, 즉 '무엇(what)'이 전달되는지를 의미하고 담화는 그 내용이 서술되는 방식, 즉 '어떻게(how)'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사건적 요소와 사물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사건적 요소는 행위와 돌발적 사건, 사물적 요소는 등장인물과 배경을 포함한다(Chatman 1980/2003:19). 담화 분석은 표현 방식에 주목하며 일반적으로 서사적 전달 구조와 서사적 발현 두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한다.

한편, 이야기 층위에 대한 분석은 통합체 분석(syntagmatic analysis)과 계열체 분석(paradigmatic analysis)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통합체 분석은 스토리 전개에 기여하는 사건적 요소, 즉 텍스트의 주제와 사건 배열의 논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반면, 계열체 분석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물적 요소, 즉 인물, 사건, 배경에 내재된 선택과 배제의 이항 대립적 가치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이경숙 2015:131-132). 통합체는 사건들이 상호 연관되고 구속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인과성을 획득하며 계열체 내에서 인물들은 심층 서사 차원의 공간과 배경 속에 존재하며, 특정 공간은 의도된 분위기와 상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환희 2022:21).

이 연구는 서사 분석을 통해 선정된 영화 작품에 재현된 서사구조, 등장인물의 유형과 관계, 이데올로기를 살펴보며 궁극적으로는 영화에 내포된 권력 구조 및 식민성의 재현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반영하여 서사 분석은 각 작품의 이야기 층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열체 분석에서는 등장인물의 특징, 관계 및 정체성을 중심으로 아시아계 집단의 이미지를 살펴보았고, 통합체 분석에서는 각 영화 서사의 인과성에 주목하여 서사구조와 핵심 이데올로기의 유사점을 도출하면서 네 편의 영화에 재현된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과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분석

www.kci.go.kr

하였다.

동아시아 수용자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주요 수용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동아시아와 밀접한 문화적 연관성을 지니며 공유된 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수용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의 미디어 수용 양상을 통해 작품에 재현된 문화 정체성에 대한 해석 및 권력의 작동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동아시아 수용자를 또 다른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즉, 이 연구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문화적 재현과 더불어, 이를 하나의 권력 담론으로 이해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러한 담론이 작동하는 방식과 권력 효과를 함께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미디어 재현 및 이것이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 내포된 지배적 이데올로기, 또한 수용자가 이를 수용하고 의미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김민승・류웅재 2022:55)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용자 분석은 디아스포라 경험 수준이 다양한 중국과 한국 수용자 14명[7]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디아스포라 경험을 선정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그것이 연구 대상 영화의 핵심 서사적 특성이며 이 경험의 차이에 따라 동서양 문화에 대한 이해, 오리엔탈리즘 인식, 문화 정체성의 해석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해 참여자를 확보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시

7) 이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였다. 첫째, 선정된 영화가 재현하는 집단과의 사회문화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인・한국인 수용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영화 네 편 중 최소 두 편 이상을 감상하고 구체적 서사 내용을 기억하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다양한 수용자 담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수용자,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중국과 한국 수용자를 유형별로 모집하였다. 아울러 직업적 배경과 문화적 경험, 정체성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자 M과 N을 추가하였다.

www.kci.go.kr

안 아메리칸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경험과 관련 장르의 부상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중심으로 수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아래 표에 제시되었다.

〈표 2〉 심층 인터뷰 참여자 기본 정보

참여자	연령	성별	국적	거주지	직업	해외 이주 경험	인터뷰 일자
A	35	남	중국	산시(山西)	대학 행정	없음	2025.11.02
B	32	여		산시(山西)	기업 직원	없음	2026.02.10
C	19	남		상하이(上海)	대학생	없음	2026.01.18
D	30	남	한국	서울	대학원생	없음	2026.01.14
E	31	여		대전	교사	없음	2025.12.31
F	34	여		천안	간호사	없음	2025.12.03
G	29	남	중국	후난(湖南)	강사	미국 3년/영국 3년	2026.01.11
H	27	여		홍콩	증권 중개사	미국 8년	2025.11.09
I	32	여		사바나	교수	미국 10년	2026.01.15
J	34	여	한국	광주	강사	중국 8년	2026.01.22
K	33	남		서울	회사 직원	미국 1년	2026.01.02
L	27	여		뉴욕	증권 중개사	미국 6년	2026.01.19
M	33	여	중국	심천(深圳)	영화감독	한국 3년	2025.10.26
N	32	여		서울	대학원생	한국 2.5년	2025.11.05

4.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재현된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

1) 텍스트가 활용하는 서사 전략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아시아계 집단의 가족 서사와 이민 경험을 핵심 서사로 재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아시아 사회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바탕으로 효, 위계질서, 가족 공동체 가치관을 발전시켜 왔고 이러

www.kci.go.kr

한 전통 속에서 가부장제를 특징으로 한 가족 양상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가족 질서는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문화적 특징이라기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가치[8]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영화에 재현된 동아시아 가족 양상의 특수성을 중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네 편의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페어웰>, <미나리>, <패스트 라이브즈>를 분석 대상으로 서사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네 작품의 핵심적 서사 요소를 <표 3>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3〉 분석 대상 영화의 서사구조 비교

분석 범주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페어웰	미나리	패스트 라이브즈
통합체	핵심 서사	엘리트 가족의 인정을 얻는 신데렐라 이야기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 이야기	미국에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민 가족의 이야기	재회한 첫사랑을 통해 고국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민자 서사
	핵심 갈등	동서양 정체성 대립	동서양 생사(生死)관 충돌	아메리칸드림과 가족 공동체의 갈등	현실과 고향의 그리움 사이의 딜레마
	주요 사건	화교 엘리트 가족이 레이첼에 대한 거부	가족이 할머니의 병세를 숨김	새로운 정착지에서 겪은 일련의 위기	첫사랑과의 재회
	서사 구조	싱가포르 방문-엘리트 가족의 비난-가족의 인정	가족의 모임-결혼식 준비-할머니와의 이별	아칸소의 이주-순자의 도래- 농장 위기-가족 관계의 악화	나영 가족의 이민-해성과의 재회-과거와의 이별

8) 예컨대 청교도주의(Puritanism)는 노동윤리와 가족 도덕, 공동체 질서를 중시하며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순종을 핵심 규범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형성하였다(이영효 2002:61).

www.kci.go.kr

분석 범주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페어웰	미나리	패스트 라이브즈
계열체	서사 배경	싱가포르 상층 화교 가족/ 2010년대 후반	중국계 이민 가족/2000년 전후	한국계 이민 가족/1980년대 미국	한국계 이민자/1990년대 이후
	주인공 특징	**레이첼**: 중국계 미국인, 경제학 교수, 비물질주의	**빌리**: 중국계 이민 1.5세대, 무직, 평화주의자	**제이콥**: 한국계 이민 1세대, 가부장, 장남, 성공주의	**나영**: 한국계 이민 1.5세대, 극작가, 현실주의
	인물 관계	레이첼-엘레노어	빌리-할머니	제이콥-모니카	나영-해성
	이항 대립	개인-가족: 개인주의-가족주의	개인-공동체: 개인주의-집단주의	사업-가족: 물질적 성공-가족 공동체	고향-현실: 정서적 귀속-현실적 성공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은 중국계 감독 존 추(Jon M. Chu)가 싱가포르계 미국인 작가 케빈 콴(Kevin Kwan)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연출한 작품이다. 영화는 평범한 중국계 미국인 레이첼 추(Rachel Chu)와 싱가포르 화교 재벌가의 후계자인 닉 양(Nick Young)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 영화는 닉의 어머니 엘레노어(Eleanor)를 비롯한 화교 가족이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레이첼을 배척하는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이는 서구 문화를 비판하고 동양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항 대립적 구조를 드러내며, 미국에서 성장한 레이첼을 주변화하고 부와 권력을 지닌 화교 엘리트 집단을 중심적 주체로 재현한다.

영화는 화교 가족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지만 싱가포르를 주요 배경으로 설정한 점으로 인해 공간적・문화적 맥락의 재현에서 일정한 괴리를 드러낸다. 이는 다민족・다문화 사회인 싱가포르의 복합적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와 민족 대표성 역시 단일하고 정태적인 이미지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www.kci.go.kr

결과적으로 복잡한 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시각적 화려함과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서구의 주류적 영화 문법이나 분위기와 차별화되는 이질감을 유발한다. 한 예로, 결혼식 장면에서 중국식 붉은 등롱, 열대 식물, 논밭 등의 이미지를 동시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적 요소를 재현하려 한다. 이처럼 이질적인 여러 문화 요소를 단일 공간에 배치하는 재현 방식은 동아시아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구분하지 못한 채, 이를 동질적인 전체로 취급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을 드러낸다.

영화는 전원 아시아계 캐스팅을 강조하며 아시아를 진정성 있게 대표하는 작품으로 홍보되었으나, 실제 일부 주요 인물이 백인 혼혈 배우로 캐스팅되면서 대중 사이에서 집단 대표성과 문화 정체성, 진실성 등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소수집단의 대표성, 문화적 순수성을 둘러싼 인종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은 화제성을 고려한 캐스팅 전략, 인기 아시아계 배우의 출연, 전형적인 신데렐라 서사를 결합하여 상업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관객으로 하여금 이 작품을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민족 영화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시아계 공동체의 문화적 자긍심과 가시성을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관객은 작품에 내포된 오리엔탈리즘적 재현과 서구 중심적 권력 담론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위험성에 노출된다.

서사적 측면에서 레이첼과 엘레노어의 긴장 관계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미국과 중국을 상징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영화는 인물 간 대립을 동서양 문화의 차이로 설정하고 있지만 문화 정체성의 갈등이 서사의 인과적 전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독립적인 갈등 장치로 활용된다. 즉, 이 영화에서 동서양 문화의 충돌은 서사적 필연성보다는 문화적 대비를 부각하기 위한 기능적 장치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특성은 과장된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을 유희적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실존하는 문제점을 희

www.kci.go.kr

석하는 효과를 지닌다. 나아가 화려한 미장센과 스펙터클한 시청각 연출은 관객의 몰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사적 개연성의 한계와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을 순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이 영화는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동서양의 문화 정체성 대립을 구축하는 한편, 민족성을 상업적 서사 전략으로 활용한다.

<페어웰>은 상업영화인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과 달리, 이민 감독 룰루 왕(Lulu Wang)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현실주의적 서사와 높은 문화적 진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최근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서 나타나는 자전적 민족 서사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영화는 이민 1.5세대인 주인공 빌리가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민자 정체성, 문화적 소속감, 가족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신념이 충돌하는 과정을 그린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배려하기 위해 병세를 숨기는 선택을 하지만, 이는 개인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미국 가치관과 충돌하며 빌리의 문화적 혼란을 일으킨다. 즉 영화의 핵심 서사는 생사(生死)를 둘러싼 동서양 가치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문화콘텐츠는 초국적 유통 과정에서 번역과 언어의 혼종화를 경험하며, <페어웰> 역시 제목의 번역[9]부터 작품의 핵심 주제가 변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의미의 변형은 다수 작품의 서사분석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모국어, 지역 방언 등이 혼용되는 언어 환경과 국가별 유통 과정에서 문화적 의미가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영화는 할머니의 병세를 알릴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을 통해 동서양의 가치관 차이를 구체화하며 이러한 논쟁은 개인과 가족, 나아가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이민자인 빌리의 자기 수용을 통해 봉합되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충돌 역시 공존보다

9) 원제 ‘Farewell(작별)’은 중국어판에서 <别告诉她>(그녀에게 말하지 마)로 번역되면서 ‘이별’에 중점을 둔 원제의 핵심 주제가 병세를 숨기는 중국식 가족주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www.kci.go.kr

는 이민자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영화는 빌리와 어머니,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의 갈등을 재현함으로써 가부장제 하에서 나타나는 가족 내 여성들 간의 위계질서를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큰아버지 가족, 미국으로 이주한 빌리 가족, 중국에 거주하는 고모 가족과 할머니를 중심으로 글로벌화한 다문화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가족 질서와 갈등 구조를 지닌 공통점을 재현한다. 이처럼 영화는 전통과 현대의 충돌과 갈등이 일상적으로 내재된 가족상을 중국 가정의 특성으로 재현하며 이러한 경향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과도 일정 부분 공명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서사는 동서양의 문화적 갈등을 다민족 가정 내부의 문제로 환원하는 한편, 동아시아 문화를 서구적 시선에서 객체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영화는 생사관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가치관 차이를 부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는 서구적 개인주의와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충돌로 그려진다. 또한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미국을 동경하거나 자국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담론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특정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재생산하는 서사적 특징을 지닌다. 나아가 영화의 일부 장면에서 동양에 대한 환상에 부합하는 기호를 재배치하는데, 이는 서사의 인과성과 무관한 창녀, 마작(麻雀) 등의 문화적 기호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동양적 전통과 이국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출은 오늘날 중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기보다는, 동아시아에 대한 서구적 스테레오타입을 선택적으로 동원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재현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서양 간의 정치・경제・문화적 격차를 과장되게 극화함으로써 위계질서를 재생산한다.

<페어웰>은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일상성과 다양성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영화는 동아시아 문화를 다층적으로 재현하는 가운데, 영어보다 다수의 중국어 대사를 활용함으로써 민족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서사적 관행에서 일정 부분

www.kci.go.kr

벗어나려는 진보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서사적 특성은 동아시아 수용자에 소구하는 동시에,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하는 통치 효과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감동적인 가족 서사는 문화적 충돌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처럼 서구적 시선을 내면화한 민족 서사는 타자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는 담론으로서 대중의 문화적 인식을 구성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미나리>는 정이삭(Lee Isaac Chung)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국계 이민자 제이콥 가족의 미국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10년간 병아리 감별사로 일해 온 제이콥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 가족과 함께 아칸소로 이주하여 농장을 일구지만, 그의 선택은 가족에게 일련의 위기를 초래하며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모니카와의 갈등을 악화시킨다. 이에 영화는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제이콥과 가족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모니카의 가치관을 핵심 갈등으로 제시한다.

이 영화는 1980년대 한국계 미국 이민의 서사를 배경으로 하며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이면에 존재했던 정치 사회적 불안정, 경제적 불평등과 치열한 경쟁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고자 했던 당시 한국계 이민자들의 곤고한 현실을 반영한다. 한편, 이 영화는 가족 서사를 넘어 미국적 개척 신화를 재현하는 방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가령 제이콥이 가족을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서사는 미국 서부극의 영웅 서사와도 맞닿아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족 서사를 넘어 미국적 개척 신화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언영 2023:163). 이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 특유의 서사적 특징이며 동서양 두 시장의 수요를 조율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영화는 가족애와 민족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미국 주류 영화 시장에서도 한국어 제목인 '미나리(Minari)'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한국에서 온 순자는 민족적 기

www.kci.go.kr

억과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한국의 미나리 씨앗을 가져온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한인 커뮤니티의 공동체 의식을 환기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수용자들의 공감과 문화적 친밀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한편, 이 영화는 여전히 동서양의 문화적 위치를 이항 대립적 구도 속에서 그려내며, 이는 순자와 미국에서 성장한 데이빗 간의 언어, 생활 방식, 젠더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 세대 갈등으로 재현된다. 이 영화는 한국계 가족을 서사의 중심 주체로 배치하는 한편, 유일한 백인 인물인 폴을 사회적 소외자로 재현함으로써 기존의 중심과 주변 간의 권력 관계를 일정 부분 전복한다. 이러한 서사는 참신성과 동시에 미국 영화의 백인 중심적 서사에 도전하는 진보성을 드러낸다.

<미나리>는 제이콥과 순자란 인물을 통해 미국 사회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태도를 제시하며, 이는 피지배 집단의 경험과 주체성을 중심으로 서구 중심적 보편주의를 성찰하려는 탈식민주의적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은용수 2020:13). 그러나 이러한 서사적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여전히 동서양의 문화 정체성을 이분법적으로 구성해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처럼 특정 문화 간에 구축된 권력 관계의 전복은 새로운 문화적 질서와 기존 권력 지형을 재구축하는 또 다른 권력 작동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동서양 문화는 상호 교섭의 대상으로 제시되기보다 대비와 경쟁의 관계 속에서 재현되며, 문화적 권력 관계 역시 이러한 대립 구조를 통해 재생산된다.

또한 영화는 권위적 가족 질서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조를 재현하며 특히 젠더에 따른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내 모니카와 딸 앤은 가사와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인물로 위치하며, 제이콥의 경제적 활동과 아들 데이빗의 건강 문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제이콥이 사업적 성공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카가 다시 가족 공동체를 선택하는 결말은 동아시아 여성성을 포용과 희생의 이미지로 신화화하는 경향을 드러낸다(이채원 2023:6). 이러한 가족 재현은 서

www.kci.go.kr

구 사회가 상상하는 동양의 가부장적 가족 이미지를 재생산하며 위계적이고 젠더화된 가부장적 질서를 동양적 정체성의 특성으로 고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가족 내부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서사구조는 이민자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인종화된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효과도 지닌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존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와 달리, 이민자 나영의 정착 과정과 자아 정체성의 탐색을 중심 서사로 구성한다. 작품은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셀린 송(Celine Song)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12세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 나영이 성인이 된 이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있는 첫사랑 해성과 재회하는 과정을 통해 이민자로서 고향과 정체성에 대해 갖는 복합적인 감정을 재현한다. 영화는 두 인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민자가 고국과 정착지 사이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소속감과 선택의 갈등을 섬세하게 재현한다. 따라서 작품의 핵심 갈등은 외부적 대립보다 이민자의 내면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편, 이 영화는 여성 주체성에 대한 뚜렷한 서사적 관점을 드러낸다.

주인공 나영은 기존 디아스포라 영화에서 반복되어 온 수동적인 여성상과 달리,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재현되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 반면 해성과 아서는 가부장적 남성성과는 대별되는 부드럽고 수용적인 남성성을 재현한다. 이는 <미나리>에서 재현된 권위주의적 남성성과 대비되며 동아시아 가부장제의 젠더 질서를 재구성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영화는 나영과 해성을 중심으로 한국계 인물을 서사의 핵심 주체로 배치하는 반면, 백인 남성인 아서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소외된 인물로 재현함으로써 영어 중심의 기존 미국 영화 서사에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전복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부각한다. 특히 세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혼용되는 미장센을 통해 언어, 문화, 공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과 문화적 긴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

www.kci.go.kr

는 감독의 개인적 경험을 상당 부분 자기 반영적으로 투영하는 서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바(Bhabha)는 주체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의 교섭과 재구성 과정에서 형성되는 존재로 보았고, 여기에서 '사이 공간(in-between space)'을 새로운 정체성이 구성되는 전략적 공간으로 설명하였다(Bhabha 1994/2012:28-29). 분석 대상인 네 편의 영화는 모두 공간적 전이를 통해 동서양 문화 간의 차이를 성찰적으로 다루며, 직접적인 갈등보다 미묘한 감정 변화와 상호이해의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재현된다(Shofi et al. 2025:155). 즉, 이러한 서사 전개는 동서양 간의 대립적 문화적 위치를 강조하며, 영화가 동아시아 문화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허구적 재현을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령 시대적 배경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서울의 도시 경관이나, 중학교 시기에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으로 묘사되는 설정은 현실성과 일정한 거리를 보인다.

오늘날 이민자의 정체성은 단선적이거나 이항 대립적 범주로 환원되기보다 혼종적인 언어, 공간, 세대 경험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복잡다기하게 형성된다. 네 편의 영화는 이민자의 불안과 내적 갈등을 가시화하고 기존 미국 영화의 백인 중심적 서사를 벗어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들 작품은 가족주의, 고향, 언어와 같은 문화 코드와 기호를 반복적으로 호명하면서 서구의 상상에 부합하는 이국적 동양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시선(Orientalist gaze)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영화뿐 아니라 동일한 장르의 문학 작품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가령 디아스포라 서사는 초국적이며 초문화적 맥락에서 동양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을 보인다(Shen & Chen 2025:238).

딜릭은 민족주의와 전통의 형성 과정에서 동양인이 오리엔탈리즘을 차용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Dirlik 1996:96). 즉, 어떤 문화의 재현 과정에서 외부(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

www.kci.go.kr

화를 단일한 전통과 정서로 구성하는 경향은 일종의 자기-오리엔탈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기존 서구 영화가 재현해 온 '강한 서구-약한 동양'이라는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아시아계 인물을 서사의 중심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적 전향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민족 서사는 높은 문화적 진실성과 내부자적 시선을 통해 오리엔탈리즘을 은밀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며 문화적 해석과 공간 재현의 과정에서 자기-오리엔탈리즘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민족주의는 서구적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무기인 동시에 그 논리를 확장하는 토착적 전략으로 기능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자기-오리엔탈리즘은 서구적 시선을 수용하고 동양을 자기 동양화함으로써 서구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Xingcheng 2006:52-53).

2)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함의: 변형된 미국 신화의 재생산

분석 대상인 네 편의 영화는 각각 차별적이거나 특성화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공간 서사, 인물, 핵심 주제 등에서 공통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들 중 다수의 영화는 갈등과 위계질서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 양상을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의 핵심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족 서사는 집단주의와 자기희생의 가치관, 장유유서(長幼有序)와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질서를 동어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획일적 가족상은 동아시아를 특정한 사회문화적 정체성으로 환원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이러한 동양의 가족상과 인간관계를 부각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서구의 가족 양상과 대비시키며 이는 역설적으로 현대 미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동아시아계 집단을 다루는 서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들은 대부분 이민자 2세대 감독의 개인 성장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

www.kci.go.kr

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민자의 대규모 이민은《1965년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의 시행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영화의 서사적 배경은 대체로 1970-80년대의 동아시아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렇기에 해당 작품들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와 도시의 실제 면모나 역동적 변화의 양상과는 거리가 있는 과거의 도시 정경과 생활양식을 재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수 영화는 낙후된 도시, 노후화한 인프라, 진부한 사회관념, 전통적 인간관계,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맹목적 갈망 등을 주요 서사적 장치와 미장센을 통해 구현한다. 이는 미국의 선진적인 정경이나 이미지와의 무의식적 대비를 통해 국가 간 위계질서를 구축 및 강화하게 된다.

동시에 네 편의 영화는 서구 문화를 주변화하거나 개인주의의 한계를 성찰적으로 재현하는 서사 전략을 공통점으로 드러냈다. 이는 기존의 미국 중심주의적 재현 방식에 일정 부분 도전한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화가 부각하는 동양 문화의 전통과 진정성은 미국 영화산업의 생산 구조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미국 신화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은폐하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동아시아를 재평가하고 객체화하는 재현 방식은 서구가 구성해 온 동양의 이미지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재생산하는 자기-오리엔탈리즘적 서사 전략을 드러낸다. 즉, 아시아계 집단의 주체성과 문화적 진정성을 부각하는 서사구조는 자기-오리엔탈리즘의 장치로 활용되어 미국 중심의 문화 헤게모니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을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첫째,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자기희생과 위계적 권력관계를 강조하며 동아시아 가족을 갈등과 억압이 공존하는 공동체로 재현한다. 이를테면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희생하는 존재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응하며 자아 주체성이 제한되는 존재로 묘사된다. 둘째, 영화는 동아시아 내부자의 시선을 통

www.kci.go.kr

해 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재현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서구의 직접적 개입 없이 민족 정체성에 대한 자기 비판적 담론을 형성한다. 이러한 재현은 동아시아 문화를 반복적으로 특정 이미지로 환원하고 객체화함으로써 자기-오리엔탈리즘적 경향을 드러낸다. 일견 영화는 다문화주의를 상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인종차별의 모순을 은폐하고 사회 체제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방희경 2021:61).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서구의 상상력에 의존한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문화 현실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변형 및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재현은 동아시아 내부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진정성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동양 담론을 형성한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아시아계 서사, 현지화된 문화 배경, 모국어 대화 등을 통해 뚜렷하고 선명한 민족성을 드러내지만 문화 정체성과 집단 재현에서는 여전히 파편화와 고정화의 한계를 보인다. 바꿔 말해,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가 활용하는 디아스포라 서사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중심주의에 저항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작품 내부적으로 혹은 수용과 관련한 문화적 층위에서 미국 중심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의 또 다른 서사적 특징으로 디아스포라 서사를 들 수 있는데, 한 예로 공간 이동을 통해 이질적 문화 간의 접촉과 교섭을 실현한다. 바바(Bhabha)에 따르면, 민족성이나 공동체적 이해, 문화적 가치와 같은 상호 주관적이고 집단적 경험의 교섭은 문화적 ‘틈새(interstices)’ 공간에서 발생한다(Bhabha 1994/2012:28-29). 이러한 디아스포라 공간에서 민족 혹은 문화적 정체성의 지속적인 재확인은 필연적인 과제가 되며 이는 저항과 타협이 공존하는 정체성의 유동(성)과 문화적 긴장을 형성한다. 현대 사회에서 유동적 특성을 지닌 디아스포라 집단의 정체성은 단일한 민족이나 국가적 요소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험적 한계, 서구 미디어 시장과 문화산업의 영향 등으로 인해 생산자의

www.kci.go.kr

고국 재현 과정에는 오리엔탈리즘적 상상이 종종 개입되곤 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아시아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아시아계 콘텐츠의 부상은 민족 서사의 가시화로 이어지고 있으나, 동시에 할리우드의 취향과 서사 양상에 맞춰 재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Iwabuchi 2010:203). 이 같은 문맥에서 웰메이드(well-made) 아시아계 콘텐츠는 로컬 콘텐츠의 확산과 보편성 확대라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전략에 의해 도구화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단순히 민족 정체성을 가시화하는 예술로 이해될 수 없으며 글로벌 영화산업 내 권력관계와 담론적 재현 방식이 교차하는 복합적 산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동아시아 수용자가 바라보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최근 서구 시장에서의 흥행과 일련의 국제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동아시아 수용자의 주목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지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반된 논쟁을 촉발했다(장첨려・류웅재 2025:309-310). 이에 이 연구는 영화 텍스트에 대한 서사분석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의 수용자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그 수용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용자의 관람 동기는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내적 요인으로는 선호 장르, 출연 배우와 제작사에 관한 관심, 서사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주로 나타났고 외적 요인으로는 지인 추천,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기반 추천, 영화제 수상 이력 등 외부 평가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동아시아 수용자의 수용 양상은 다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효과적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홀(Stuart Hall)의 부호화-해독(encoding-decoding) 모델[10]의 분석 틀과 함의를 차용하였다.

www.kci.go.kr

미디어 콘텐츠의 품질이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될 경우, 수용자는 자신과 문화적 친연성과 공유된 의미를 지닌 문화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아시아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과 사회문화적 기억, 특히 식민과 탈식민의 집단적 경험은 국경을 초월한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매개로 지역 공동체 형성의 공간을 제공한다. 기존 미국 영화와 비교할 때, 다수의 수용자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 근거로 높은 문화적 친연성 및 진정성을 제시하였다. 가령 익숙한 언어와 공간, 가족 서사는 수용자의 강한 공감을 끌어냈으며 특히 가족 양상의 재현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요소였다. 수용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텍스트를 해독했고 보편성을 지닌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재현은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서사분석 결과, 획일적인 가족 재현은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을 특정한 가족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용자들은 이러한 재현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배적 해독 양상을 보였다. 이는 영화가 제시한 문화적 특징이 문화 정체성에 대한 광의의 사회적 인식이나 정서 구조로 내면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이러한 환원주의적 재현은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동아시아 가족상을 새로운 문화적 스테레오타입으로 재생산하고 나아가 집단 내부자들에게도 이를 자연스러운 문화적 특성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수용자들은 영화에 재현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와 아메리칸드림 서사에 대해 대체로 지배적 해독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해당 서사가 초기 아시아계 이민자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높은 현실성과 설득력

10) 홀은 미디어 텍스트의 의미가 생산자가 아니라 수용자의 사회적 위치와 문화적 경험에 따라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지배적-헤게모니적 해독(dominant-hegemonic reading), 타협적 해독(negotiated reading), 저항적 해독(oppositional reading)으로 구분하였다. 이 모델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이에 대한 수용자의 수용 과정을 통해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Hall 1996/2015:432-436).

www.kci.go.kr

을 확보한다는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해외에 간 적이 없는 참여자 B는 <페어웰>을 언급하며, “그때는 미국 교육이 좋고 배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민한 사람이 많았죠. 미국 여권을 가져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디를 가든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는 태도도 모두 정상적이에요. […] 호텔 직원이 (미국과 중국) 어디가 더 좋은지 묻는 모습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돈만 있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미국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궁금해서요”라는 발언을 통해 참여자 B가 재현된 미국 신화를 수용할 뿐 아니라, 이를 소비와 새로운 정체성과 관련된 욕망으로 적극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형적 서사는 오늘날의 현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아메리칸드림을 반복적으로 환기하며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수용자들은 오리엔탈리즘적 재현에는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아메리칸드림 서사에 내재된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수용 양상을 보였다. 특히 디아스포라 경험이 없는 국내 수용자는 관련 경험의 부재로 인해 영화가 제시하는 시대적, 문화적 재현을 지배적 해독 방식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디아스포라 경험이 풍부한 수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의 재현 방식을 재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타협적 해독 양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였다.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참여자 I는 디아스포라 경험을 바탕으로 동서양 문화를 모두 경험한 수용자로 특정 현상을 문화적 차이로 고정하는 영화의 재현 방식에 관해 비판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녀가 “다들 이 일(선의의 거짓말)을 중국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도 이 일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 충돌이라기보다 사실 개인 성향의 차이죠. 서양에서도 부모님의 실제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미국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릴지 선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거예요. 이는

www.kci.go.kr

인권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차이죠.”라고 진술하였다.

동아시아 수용자들의 오리엔탈리즘적 재현에 대한 민감성은 서구 미디어가 장기간 재생산해 온 오리엔탈리즘 담론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 따라서 영화의 서사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수용자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저항적 해독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경향은 선명한 스테레오타입을 활용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 대한 인터뷰에서 두드러졌다. 예컨대, 참여자 N은 “그 영화에 나오는 아시아 부자들은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과도하게 스테레오타입화되어 (묘사되고) 있어요. 물론 부자가 돈은 많지만 정신병자는 아니잖아요. 웃기려는 부분도 별로 안 웃겨요. 백인들에게는 웃음거리일 수 있지만, 중국인인 제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고 모든 캐릭터가 정신병자 같았어요.”라 비판하며 저항적 해독을 보여주었다. 또한 참여자 H 역시 감독의 ‘아시아계’ 정체성을 강조하며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를 서구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생산된 문화적 산물이라 진술하였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과 같이 성공적인 상업영화는 종종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을 코미디의 소재와 장치로 활용하는 장르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수용자는 문제적 스테레오타입을 자연화하거나 큰 심리적 저항 없이 수용하는 해독 양상도 드러난다. 가령 참여자 B는 과장된 표현을 희극적 효과를 위한 장르적 장치로 해석하였으며, 참여자 A와 D는 서사보다 코미디 장르가 제공하는 오락성과 힐링 효과를 강조하였다. 또한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인식 기준 역시 수용자마다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참여자 I는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는 가난하다’는 스테레오타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느낌이라 재미있게 봤어요.”라 언급했다. 특히 ‘가난한 아시아인’이란 기존의 미디어 스테레오타입을 뒤집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역발상과 이것이 가져온 사회문화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사실주의 서사를 기반으로 한 예술영화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 보다 은폐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시각적 재현이

www.kci.go.kr

나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에서는 강한 수준의 저항적 해독이 확인되었다. 특히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주인공의 한국어 억양이 한국 수용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자 L은 “초등학교 때 외국으로 이민한 사람이 모국어를 까먹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한국어를 너무 못해서 내용의 이해에도 방해가 되었어요. 영화의 취지에 맞추려고 일부러 한국어를 못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의 언어 능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몰입에 방해가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동일한 민족 집단의 수용자에게서 주로 포착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저항적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저항적 혹은 타협적 해독은 영화제 수상, 흥행성과, 언론 보도, 평론가의 평가 등 작품을 둘러싼 공인된 담론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 드러났다. 해당 언론 보도는 많은 동아시아 수용자가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를 관람하는 동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진리 담론의 지배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실제 관람 경험과 일정한 괴리를 보였고, 다수의 수용자는 그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주류적 평가와 다른 평가를 내릴 경우, “저는 한국에 안 가봐서 모를 수도 있다”(참여자 A), 배우와 수상 이력 때문에 “의리로 봤다”(참여자 D)와 같은 발언을 통해 작품을 둘러싼 권위적 담론을 승인하거나 그에 순응하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반면, 참여자 H와 N은 이러한 국제 영화제 수상 이력을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한 결과로 비판하였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성장한 참여자 H는 영화의 획일적인 가족 서사를 서구 주류 시장의 아시아계 집단에 대한 제한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들은 문화 정체성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정치적 올바름의 과도한 추구가 작품의 예술성을 약화시켰다고 인식하며 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수용자는 이러한 경향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컨대 영화감독인 참여자 M은 “정치적 올바름이 인종 갈등을 감소시키고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목적이라면 저는 (그것이) 좋은

www.kci.go.kr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스카 시상식이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이를 통해 좋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대중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왜 안 할까요?"라 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그녀가 작품의 재현이나 서사 자체보다 영화를 통해 고국 문화의 홍보 기능을 더 중시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선정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들은 유사한 유통 경로를 보이며, 대체로 '영화제 수상-서구권 개봉-동아시아 개봉'의 과정을 따르며, 오늘날 '영화제 수상'과 '감독의 브랜드화'는 예술영화의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화제 수상은 작품의 예술적 정당성과 상징 자본을 강화하며 감독의 브랜드화는 고유한 스타일과 명성을 바탕으로 관객의 기대와 안정적인 수용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조해진 2013:560). 더불어 서구의 주류 담론은 동아시아 수용자의 작품 수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 영화산업은 외부 담론의 생산을 주도함으로써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부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초국적 권력 메커니즘을 통해 글로벌 수용자의 문화 수용과 소비의 장(場)을 주조하는 권력 효과를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영화를 둘러싼 외부 평가는 수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 담론으로 기능한다. 특히 개봉 시차로 인해 서구 시장의 주류 보도는 동아시아 수용자의 작품 선택과 해석에 중요한 근거로 작동한다. 주류 담론과 실제 수용자 평가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부상 과정에 미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수의 수용자는 스테레오타입과 서사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해당 작품의 부상을 문화 교류와 민족 문화의 가시성을 확대하는 계기로 인식하였다. 이 같은 문화적 혼종성은 지역 문화 행위자와 글로벌 문화 형식 간의 상호작용과 협상 과정에서 형성되며 수용자는 이를 자신의 문화적 의미를 구성하는 자원으로 활용한다. 즉 이러한 타협적 해독은 미국 영화산업의 지배적 생산 구조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포한다.

www.kci.go.kr

예컨대, 참여자 F는 대표자로서 “지금 서구 영화계는 여전히 백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시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려는 시도는 유의미하다”라고 언급하며, 백인 중심의 서구 영화산업에서 자기 민족 서사를 담은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대한 지지, 즉 민족주의적 문화 소비를 지지하였다. 또한 참여자 N은 영화의 서사에 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면서도 작품의 생산에 대해서는 양가적 태도를 드러냈다. 그녀는 “전원 아시아계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영화를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국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이유는 이해하는데, 아직 시작 단계잖아요.”라 진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동아시아 수용자의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대한 해독 양상은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디아스포라 경험이 없는 수용자들은 문화적 근접성 혹은 친연성을 바탕으로 지배적 해독을 보이며, 영화에 재현된 문화 양상과 아메리칸드림 서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정서와 공감을 표출하였다. 반면, 해외 경험이 풍부한 수용자는 서사 재현의 단선적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민족 집단의 가시화라는 긍정적 의의를 강조하는 양가적 태도를 드러냈다. 한편 작품 속 뚜렷한 스테레오타입과 문화 재현의 왜곡에 대해서는 저항적 해독이 관찰되었으며 일부 수용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만 이러한 다층적인 해독 양상이 발현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부흥과 확산이란 차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장르와 관련 작품의 생산과 수용을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수용은 소극적 문화 향유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며 민족주의적 혹은 탈식민적 수용과 소비 양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 양상은 글로벌 영화산업에서 아시아 콘텐츠의 희소성 및 아시아계 감독의 제한된 창작 환경을 고려한 결과로 작품을 민족적 대표성과 발전 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족과 문화 정체성의 가시성 확산을 위해 미국 영화산업이 주도하는 생산

www.kci.go.kr

질서와 문화적 권위를 승인하는 타협적 수용으로 이어진다. 다만 이러한 소비 양상은 민족 정체성의 확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역설적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의 경계인으로서의 현실을 재확인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 서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혼종성은 작품에 내포된 서구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은폐하는 효과를 지닌다. 결국 이러한 민족 서사는 표면적으로 민족 정체성을 가시화하는 듯 보이나, 궁극적으로 미국 신화를 정당화하고 미국 영화산업의 문화제국주의적 지위를 공고화하는 담론적 장치로 기능한다.

6. 나오며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오늘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지속적 노력과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 연구는 네 편의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의 서사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 작품이 소수자 정체성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미국 신화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동아시아 수용자들은 이러한 재현을 공감과 비판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며 문화 정체성을 절충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또한 미국 영화산업은 영화 내부의 서사뿐만 아니라 영화제와 언론 등 외부 담론을 통해 민족 서사를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국 영화의 지배적 서사구조가 오늘날 소수집단 서사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단순한 미디어 텍스트를 넘어 동아시아에 관한 담론을 구성하고 확산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들 작품은 아시아계 인물을 서사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서구 중심적 서사구조에 도전하며 탈식민적 가능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생산자의 제한된 경험은 동아시아 문화와 공간을 선택적으로 재현하며 일부 문화 요소를 고정된 이미지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서사

www.kci.go.kr

는 미국의 인종이나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 노력과 적응, 가족의 회복을 강조하며 아메리칸드림의 신화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아시아계 집단을 주체로 재현하는 전향성은 동양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서구적 시선과 결합하며 자기-오리엔탈리즘을 재생산하는 서사 전략으로 기능한다.

한편, 디아스포라 서사는 두 문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의 협상과 이동을 보여준다. 특히 인물들은 동화, 저항, 전이를 경험하는 유동적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동서양의 문화적 위계와 차이를 부각시킨다. 동아시아 수용자는 이러한 서사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해석 양상을 보이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재성찰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계 제작자의 참여는 민족적 대표성과 문화적 신뢰를 높이는 역할이 된다. 이러한 내부자적 재현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타자화를 교정하고 발화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문화시장의 가독성과 상업적 요구에 충실하며 문화적 본질화를 강화할 경향도 내포한다. 이를테면 그들의 개인적 이민 경험이 집단 전체의 문화 경험으로 일반화될 때 환원주의적 재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처럼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오래된 식민주의적 편견과 억압에 대응하는 정치적 가능성과 더불어, 기존 지배 담론의 자장 내에 포섭되어 이를 재생산하는 이중적 성격을 드러낸다.

즉,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문화 생산자와 매개자는 동아시아 문화 재현의 진정성을 향상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제한된 경험과 내면화한 서구적 시선은 동양을 고정된 이미지로 객체화하는 자기-오리엔탈리즘적 재현으로 이어진다. 글로벌 다문화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적확한 인식은 문화 간 개방적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된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이러한 과정을 매개하는 초국적 문화콘텐츠로서 새로운 문화 담론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 서사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변형된 문화제국주의적 논리와 접합되며 특정한 동양 이미지를 재

www.kci.go.kr

생산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국 이 작품들은 표면적으로 동아시아와 그 구성원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전향적 효과를 거두면서도, 글로벌 영화산업의 생산 조건 속에서 변형된 미국 신화를 재생산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오늘날 미국 영화가 소수집단 서사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정경에서 자국의 지배적 지위를 재생산 및 공고하게 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 수용자 14명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상이한 제작 배경과 장르적 특수성을 지닌 네 편의 영화들을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란 범주에 넣어 다룸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일반화나 보편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도 존재한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은 문화를 매개하며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담론 공간으로 기능한다. 수용자는 이러한 매개 과정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고 문화산업의 상업적 조건은 특정한 민족 서사와 재현 방식을 반복적으로 선호하게 한다(신혜경 2013:97-98).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는 서구의 동양 담론을 생산하는 문화적 장치이자, 식민 담론이 현대적으로 재구성되는 공간이다. 이는 서구가 구축한 동양 담론이 미디어 산업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식민적 권력관계가 재생산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민족 서사를 활용한 초국적 문화콘텐츠가 미국 중심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재생산할 가능성에 대한 성찰적 접근을 요구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민승・류웅재(2022),「대중문화 콘텐츠가 재현하는 지역과 청년들 : 드라마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언론과 사회』, 30권 3호, 42-92.

김용한・이전이(2015),「아시아계 미국인의 이주사와 교육사를 통한 인종주의(Racism)에 대한 고찰」.『인문연구』, 74호, 277-312.

김환희(2022),「미디어가 재현하는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과 청년 담론의 재생산: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서사분석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66권 3호, 5-57.

나병철(2004),『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서울: 문예출판사.

박소영・노철환(2021).「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 속 미국 지배적 가치 분석: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중심으로」.『PREVIEW : 디지털영상학술지』, 18권 2호, 31-53.

박언영(2023),「'마음의 언어'와 영화언어:〈미나리〉(정이삭, 2020) 논쟁을 중심으로」.『인문콘텐츠』, 68호, 151-173.

박은지(2026),「A24의 아시안 어메리칸 영화: 동아시아 가족 드라마에 투영된 이민자의 자기정체화와 멜랑콜리아」.『영화연구』, 107호, 237-272.

방희경(2021),「미국 사회와 샤이 케이팝 팬」. In『한류, 다음: 영어권편』(pp.51−7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신혜경(2013),『벤야민 & 아도르노: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경기도 파주: 김영사.

원용진(2010),『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은용수(2020),「혼종 식민성(Hybrid coloniality): 탈식민주의로 바라본 한국의 외교안보정책」.『국제정치논총』, 60권 1호, 7-61.

이경숙(2015),「텔레비전 텍스트의 서사 분석 방법」. 한국언론정보학회(편),『(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서울: 컬처룩.

www.kci.go.kr

이영효(2002),「How ‘Puritan’Were the Puritans?: Family and Community in Colonial New England」.『미국사연구』, 16권, 57-77.

이채원(2023),「영화 <미나리>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문제적 징후들과 내포된 담론들」.『한국문예비평연구』, 77호, 5-28.

이태준(202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탈식민주의 담론의 형성과 경합 (2011-2020): 평화의소녀상 건립에서 일본군‘위안부’ 이용수의 기자회견까지」.『인문연구』, 109호, 217-251.

장첨려・류웅재(2025),「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에 재현된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 영화 <페어웰>과 <미나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권 4호, 291-316.

조해진(2013),「상업영화와 예술영화의 간극」.『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권 2호, 555-568.

한송희(2020),「가난 재현의 정치학: 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언론과 사회』, 28권 1호, 5-50.

Bhabha, H. K.(1994). *The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역)(2012),『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수정판』. 서울: 소명출판.

Chatman, S.(1980).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역)(2003),『이야기와 담론』, 서울: 푸른 세상.

Chong, S. S. H.(2017). What Was Asian American Cinema? *Cinema Journal,* 56(3), 130–135.

Dirlik, A.(1996). Chinese History and the Question of Orientalism. *History and Theory,* 35(4), 96–118.

Feighery, W. G.(2012). Tourism and self-Orientalism in Oman: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ritical Discourse Studies*, 9(3), 269–284.

Hall, S.(1996).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임영호(역)(2015),『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스튜어트 홀 선집』. 서울: 컬처룩.

www.kci.go.kr

Iwabuchi, K.(2010). Globalization, East Asian media cultures and their public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2), 197–212.

Kawai, Y.(2005). Stereotyping Asian Americans: The dialectic of the model minority and the yellow peril.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16(2), 109-130.

Kraidy, M. M.(2002). Hybridity in cultural globalization. *Communication theory*, 12(3), 316-339.

Li, D. L.(1998). *Imagining the nation: Asian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al consent.* Stanford University Press.

Moore-Gilbert, B. J.(1997). *Postcolonial Theory.* 이경원(역)(2003),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서울: 한길사.

Said, E. W.(1978). *ORIENTALISM.* 박홍규(역)(2015), <오리엔탈리즘: 25주년 기념판>, 서울: 교보문고.

Shen, L. C., Chen, X.(2025). Gender in Cross-Cultural Encounters: Orientalism and Self-Orientalisation in Chinese-Language Young Adult Fiction.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56, 238–255.

Shofi, S. A., Sartini, N. W., & Prestiawan, D.(2025). Politeness Strategies and Cultural Scripts in the Past Lives Movie: a Cross-Cultural Pragmatic Analysis. *SUAR BETANG,* 20(2), 147-158.

Xingcheng, Z.(2006). The Globalized Logic of Orientalism. *Contemporary Chinese Thought,* 37(4), 48–54.

기사

Kramer, S., & Passel, J. S. (2025.8.21.). What the data says about immi grants in the U.S. <Pew Research Center>. URL: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5/08/21/key-findings-about-us-immigrants

www.kci.go.kr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East Asian Cultural Identity and Audience Reception in Asian American Films: Focused on Chinese and Korean Immigrant Narratives

Tianli Zhang
(Hanyang University, Dept. of Media and Communication, Ph. D.)

Woongjae Ryoo
(Hanyang University, Dept. of Media and Communication, Professor)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has witnessed a growing production of transnational content that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yet emphasizes region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Asian American cinema has emerged as a distinctive narrative genre based on immigrant experiences and has expanded rapidly into Western mainstream markets over the past decade. Drawing on a postcolonial perspective informed by Edward Said's concept of Orientalism and Homi Bhabha's theory of cultural hybridity, this study examines the narrative strategies of four films—*Crazy Rich Asians*, *The Farewell*, *Minari*, and *Past Lives*—focusing on their representations of East Asian images and cultural identities.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Chinese and Korean audience member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se films on East Asian audiences.

The findings show that Asian American cinema exhibits postcolonial tendencies by representing East Asian cultures and lifestyles and by employing hybrid identities to challenge the white-centered power structure. However, these films continue to construct a binary opposition

www.kci.go.kr

between Asia and the United States, positioning the U.S. as the center of opportunity and success through recurring representations of the American Dream. Meanwhile, East Asian audiences maintain a critical awareness of U.S.-centered cultural power while adopting a negotiated position toward the visibility and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Asian representations. Overall, these findings reveal the ambivalence of glocalization, which foregrounds regional and minority identities while repositioning them within a U.S.-centered cultural order, thereby reinforcing the status of the U.S. as a cultural imperial power.

Keywords: Asian American Film, Orientalism, Cultural Hybridity, East Asian Audiences

▌논문투고일 : 2026. 08. 17
▌심사완료일 : 2026. 10. 05
▌게재확정일 : 2026. 10. 09

www.kci.go.kr

www.kci.go.kr